

하나이면서 둘인 바다, 욕심을 버리다

[발로달는 잠녀의 삶] 구좌읍 김녕리

등록 : 2007년 05월 13일 (일) 15:41:22
최종수정 : 2007년 05월 13일 (일) 15:41:22

고 미 기자 ✉ popmee@hanmail.net

목숨줄을 내걸고 바다 작업을 하는 잠녀들에게 '잠녀굿'의 의미는 크다. 한해 무사안녕과 소중한 물건을 내어 달라는 바람을 담은 '지드림'에 대한 정성 역시 지극하다. 산남을 훑던 발길을 잠시 돌려 구좌읍 김녕리 어촌계를 찾았다. 도내에서 잠수굿의 원형을 거의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김녕리 어촌계에서는 음력으로 3월 8일, 그러니까 지난달 24일 잠녀굿이 치러졌다.

△하나이면서, 둘이면서

일제시대 때 동·서로 나뉘던 뒤 하나가 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지난 2002년 '동·서' 딱지를 떼고 김녕리 어촌계가 통합되면서 마을도 하나가 됐다. 그동안 마을 행사는 계속 같이 해왔지만 행정적인 분리 상황이 계속되던 터라 통합으로 인한 기대효과는 컸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잠녀회만큼은 하나로 묶지 못했다.

잠수회 총회장은 황덕자씨(67)지만, 그 아래 동회장 김복희씨(61)와 서회장 강창화씨(61)가 각각의 잠수회를 이끌고 있다. 특별히 어촌계 규약 같은게 있는 건 아니지만 잠녀들끼리의 오랜 약속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통합 역시 잠녀들의 선택에 맡겼다.

잠녀들의 '선택'을 전제로 깔기는 했지만 바다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편의상 동·서김녕으로 나뉘) 동김녕 어장 면적은 332만3000㎡으로 서김녕 125만2200㎡의 갑절이 넘는다. 동김녕은 또 김녕해수욕장을 끼고 있지만 빌레가 많아 어장이 좋은 반면, 서김녕은 상군잠녀조차 숨빌 수 없을 정도로 깊어 물질이 힘들다고 했다.

5년전만해도 동·서김녕 잠녀들의 수입이 비슷했다. 상대적으로 잠녀수가 적은 서김녕(54명)이 동김녕(100명)에 비해 수입이 좋을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서김녕바다가 황폐화되면서 차이가 커졌다.

취재를 갔을 때는 천초 작업이 한창이었다. 무도를 제외하고는 도내에서 하도 다음으로 천초가 많이 나는 곳이 이곳 김녕이다. 다소 질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생산량이 많아 김녕내 8개 동마다 공동으로 천초작업을 한다. 물질과 달리 천초는 동성동·청수동·봉지동·신산동·용두동·대충동·한수동·남홀동 등 8개 마을이 한여·덩개·가수(코지)·이아래(이상 동김녕)·소여·한개·소노비·수어새 등 8개 바다를 1년에 한 번씩 번갈아 가며 작업을 한다.

천초 작업과 5·6월 마늘·양파 수확 시기가 겹치면서 천초 바다를 파는 '빈매'도 성행했었지만 3년전부터는 '동'에 모든 것을 위임했다. 일당과 수익금 등으로 한사람당 150만~200만원이 돌아갈 정도다.

지난해 30kg 마대 400개 분량이 났던 툯은 올해 88개를 수확하는데 그쳤다. 벌이가 시원치 않으니 작업도 제대로 될 리 없다. 김녕리어촌계는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완전 공동작업으로 툯을 수확한다. 툯 작업을 하지 않으면 천초 작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등 자율규약을 만들었다고 했다.

△바다를 터전으로 미래를 꿈꾸다

잠녀회가 나뉘어 있다고 바다도 제각각 관리하는 것은 아니다. 동·서바다를 번갈아가며 투석이나 종패 사업을 하고 또 관리한다. 전북 종패는 7~8년전부터 바다에 뿌렸지만 이제야 200~300g짜리 한두개가 잡히는 게 전부다.

소라 총허용어획량(TAC) 배정량이 도내 어촌계 중 가장 많지만 요즘은 배정물량을 채우기가 힘든 실정이다. 예전 한 개 포구하면 ‘꽃조개’가 유명했지만 지금은 펄조개가 그 자리를 대신할 정도로 환경도 많이 변했다. 그래도 성게나 해삼·오분작·문어 등 물건은 다양한 편이다. 계통판매 실적 역시 도내에서 상위에 꼽힐 정도로 활발하다.

제주도의 최북단인 ‘가수코지’와 일제 시대 작은 섬을 이어 코지처럼 만들어놓은 ‘목지코지’가 있고 프레스 제주의 ‘해풍에 의한 자연 건조장’이 있는 등 큰 마을의 이점도 풍부하다.

안병삼 어촌계장은 “물건이 줄어들었다고 유어장이니 뭐니 해서 시대에 편승해 새로운 수익사업을 할 계획은 없다”며 “바다에 의존해 살고 있는 만큼 ‘바다’를 잘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녕리는 해녀정보화마을이기도 하다. 해산물 등을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하는 등 판로를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사업이지만 아직 활성화되지는 않은 눈치다.

대신 이곳에는 8억원을 들여 모든 어패류를 취급하는 김녕어촌계 워판장이 지어질 예정이다.

뭔가 더 얻을 수 있을 것이 있을 만도 한데 바다를 닮은 사람들에게 ‘욕심’이란 단어를 찾는다는 것 자체가 욕심인 듯 하다. ‘욕심을 부린 만큼 잃는 것도 많다’는 자연의 순리를 지키는 바다가 5월의 햇살을 받아 눈부시다.

‘발로 밟는 잠녀들의 삶’ 다음 이야기는 성산읍 오조리이며, 관련 내용은 해녀박물관 홈페이지(www.haenyeo.go.kr)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